

올해는 소나무숲 지키기 원년...전남도 재선충 방제 총력

연간 공익 가치 71조·경제 가치 3000억...전남 산림자원 주축
2018년 4000여 그루 고사목 5년만에 2만5000 그루 넘어서
온난화·가뭄 등 이상기후로 유충 급증...전남 동부권 피해 집중
110억원 투입 모두베기·그물망 피복·나무주사 등 예방 활동



재선충 감염목 등 고사목이 도로변 등 장비 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 1.5cm 이하로 파쇄해 목재 파レット로 재활용한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올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을 110억여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2023년 93억여원을 투입했으나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에 포함된 고사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방제대상목 6만5678그루(감염목 2만5662그루) 가운데 4001그루를 방제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매년 급증하는 소나무 재선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제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산주의 허가를 받아 임목을 일시에 전부 또는 대부분 벌채하는 것)를 확대하면서 훈증, 그물망 피복, 예방 나무주사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약 17%, 산림의 27.5%를 차지하는 소나무림(잣나무 포함)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71조원, 목재·조경수·송아·잣 등 임산물의 경제적 가치는 3000억원에 달한다. 관광·휴양·문화 자원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소나무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으로, 방제사업을 중단할 경우 10년 내 소나무림의 78%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과 이를 포함한 고사목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내 감염목은 지난 2018년 4월 4392그루, 2020년 4월 1만1242그루로 1만 그루를 넘어서더니 2023년 4월에는 2만5662그루로, 5년 전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감염목 2만5662그루 가운데 1304그루를 방제하는데 실

패했다. 감염목을 포함한 고사목은 지난 2018년 4월 2만 7519그루, 2020년 4월 2만7413그루, 2023년 4월에는 6만5678그루로 늘어났다.

전남에서는 주로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나주·화순에서 감염목이 발견되는 등 22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나타났다. 여수가 고사목 3만825그루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순천(1만7000그루), 광양(9562그루), 장성(3117그루), 나주(1684그루), 고흥(1453그루)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감염목과 고사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겨울철 온난화, 가뭄 지속 등으로 매개충 유충이 급증하면서 활동 지역이 확대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감염 사실을 늦게 파악하거나 방제 인력이 접근하기 곤란한 산악지대에 있어 완전 방제가 어렵는데다 방제 예산이 부족한 것도 그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가 극심한 동부권에 대해서는 피해지 중심 모두베기를 확대해 정정구역을 확보하는 한편 경미한 지역은 감염목을 제거해 예방나무주사를 주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합방제와 소구역 모두베기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항공·드론 예찰, 책임예찰원 지정 등을 통해 예찰을 강화하면서 연접 시·군 간 공동 방제선을 폭 150~200m로 구축해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을 5월부터 12월까지 감염 의심목의 시료를 채취해 QR코드를 등록하고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수집·파쇄, 훈증, 그물망 피복, 예방나무주사 등 다양한 방제 방법을 적용해 재선충 예방에 나선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고사목 9893그루 제거, 나무주사 463ha, 벌채 35.6ha 등을 마친 전남도는 1월부터 3월까지 고사목 3만5373그루 제거, 나무주사 1001ha 등 맞춤형으로 방제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여수시 4만1074ha 등 14개 시·군 495개 동·리 25만3581ha를 지정할 바 있다.

박주완 전남도 산림보호팀장은 "가장 효과적인 방제는 모두베기이지만 산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벌목업체, 산주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여수에서 시범적으로 모두베기에 나섰으며, 앞으로 나주도 적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1mm)의 일종으로 나무 조직 내에 수분,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감염 1년 안에 소나무를 말라 죽이는 해충이다.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감염률 경우 100% 고사하게 된다. 소나무에 재선충을 옮기는 곤충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두 종류로 알려져 있으며, 항공 방제가 금지되면서 서식지가 증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외곽지역이나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반경 소나무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주입한다. 다만 지름 10cm 미만 소나무는 제외된다.



산속 등 수집·파쇄가 어려운 지역은 원목과 가지를 1m 내외로 잘라 약제 처리한 후 덮개로 덮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산불·재선충으로 고사해가는 전남 산림자원...맞춤형 방제로 보호 최선”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

“전남의 뛰어난 산림 자원을 잘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산림자원과의 목표입니다. 산불에 이어 최근 전남의 산림을 파괴·훼손시키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등 해충들을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희(55·사진)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에게 2023년은 유례 없는 산불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로 곤혹을 치른 해다. 지난해 4월 3일부터 1박2일간 계속된 순천·함평 산불은 전남 최초의 3단계 산불이었으며,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은 지난해 4월 통계 사상 처음으로 2만 그루를 넘어섰다. 뛰어난 산림 자원이 한 번의 실수로 검은 재가 되고, 방제 실패로 고사해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정성으로 장성 측령산 편백숲,



대림이 집중 분포돼 있다. 특히 안도수목원이 가진 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 난대림의 가치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전남소방본부와 협조 하에 특수진화대, 공중진화

장흥 천관산 동백숲, 화순 안양산 편백숲 등을 조립 해왔습니다. 전국 100대 명품숲에 전남은 10개가 포함될 정도로 훌륭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후 변화 속 미래 가치가 큰 난대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남은 전국 92%의 난대림이 집중 분포돼 있다. 특히 안도수목원이 가진 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 난대림의 가치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전남소방본부와 협조 하에 특수진화대, 공중진화

대를 결성해 산불 진화에 나선 강 과장은 올해 하반기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형 산불을 막기 위해 미리 이들 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례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 산불을 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저지하기 위해 '모두베기'를 확대하고, 맞춤형 방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아깝다고 가지 않는 전남의 숲을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백, 상수리, 목백합 등을 1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을 방침이다. 2050년까지 꾸준히 계속해 5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